"파워있는 생의학 연구원 될 터"

글 _ 이승호 고려대학교 의대 석사과정

일반적으로 실험실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실험도구가 떠오를 것이다. 구식 SF 영화에서 과학자의 실험실을 묘사할 때마다 꼭 나오는 장면이 있다. 과학자의 전공이 무엇이건 이상한 색깔의 액체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플라스크, 하얀 약사 가운을 입은 영화속 과학자의 주임무는 한쪽 실험관에서 다른 실험관으로 액체를 옮기면서 가끔 폭발시키는 것이고, 이 플라스크에서는 인조인간, 로봇, 돌연변이 괴물, 종말 기계, 투명인간, 약 등 거의 모든 것들을 뽑아낸다.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한 색깔의 액체를 이리저리 옮긴 결과 나왔다는 것이 경이로울 뿐이다. 요새는 컴퓨터라는 것이 있어서 플라스크 없이도 작업을 더욱 시각화시킬 수 있지만 이런 실험실의 모습이 일반인에게 각인되어 일반적인 실험실 상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린시절 무심코 보아왔던 이런 영화속의 실험실과는 다른 현실의 실험실은 좁은 공간에 불과하지만 연단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이더스의 손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대학원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실험실은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실험실이라는 곳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루를 함께 보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삶 자체가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제2의 가정인 실험실은 가족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다양한 전공과 풍부한 연구경험이 어우러져야 폭넓은 연구를 할 수 있다. 다행히 내가 있는 실험실은 아버지같은 교수님과 안방 살림을 꾸리는 박사 1명, 누나 같은 연구원 2명, 동생같은 3명의 대학원생, 그리고 NIH에서 박사이후과정에 있는 이모 같은 선생님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학생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움과 동시에 조교로서 의학생들의 실습을 계획하고 지도하기도 한다. 두가지 역할을 병행하면서 대학원생활을 하다보니 연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 초보 과학자의 좁은 시야와 자신감 부족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 앞에서 서성이기도 한다. 때로는 너무나 과학적 흥미가 다양하고 열정이 지나쳐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다.

아직까지는 드라마틱한 실험실 에피소드는 없지만,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분주한 과정 그 자체가 나만의 에피소드가 아닐까. 우리 실험실의 슬로건은 'POWER'이다. 생산적이고(Productive), 우수하고(Outstanding), 세계적이고(Worldwide), 활기차고(Energetic), 기대에 부응하여(Responsive) 의학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파워있는 생의학 연구원이 되자는 것이다.

프랑스를 빛낸 위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인물은 알프스를 넘은 나폴레옹 황제가 아니라, 좁은 실험실에서 미생물과 씨름했던 과학자 파스퇴르였다고 한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 많은 혜택을 준 그의 과학적 업적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의 풋내기 학생이지만 '예측의학', '맞춤의학' 실현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를 과학의 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 위해 오늘도 이곳 연구실의 불을 밤늦도록 밝힐 것이다. ST